

현 불 뉴 스

일각스님 사리 친견

조계총림 장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회광 일각스님 다비식 이후 해신사리 33과 치아사리 27과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송광사는 일각스님의 사리를 삼일암 미소실에서 일반에 공개, 친견토록 했다. 일각스님의 49재는 8월10일 송광사에서 봉행된다.

파라미타 부산간담회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는 지난 2일 부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의실에서 부산지부 합참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

원각사비 보호각 설치

탐골공인 안 원각사비(보물 제3호)에 보호각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원각사비를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붕을 한 17평 규모의 보호각을 건립키로 하고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가 8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까지 문화재 및 불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호각 설계를 마무리하고 모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에 착공한다.

자원봉사센터 발대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오는 13일 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갖는다.

사회장에 지도스님

개원 3주년이 되는 대구 자비의전화가 지난 6월28일 대구 삼성금융플라자 5층 다목적홀에서 제2대 회장 취임식 및 기념강연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임회장에는 지도스님(동화사 포교국장)이 취임했으며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불련 부산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가 6월 29일 부산역 앞 뷔페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옥치담동문(부산대졸)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정관승인과 임원단 선출을 마무리했다.

'불교정화사' 정리 움직임

태고종 '백서'·선우도량 '자료집' 발간 추진

비구·대처분규로 얼룩진 불교정화를 정점으론 한국 현대불교사를 객관적 자료집을 통해 정리하고 미래불교의 모습을 그려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혜초)이 조·태분규의 실상을 자료로 정리할 백서를 준비하고있고 선우도량(상임대표 해담스님)이 불교정화운동사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민도광스님이 정화관련 자료집 출간을 서두르고 있어 묻혀있던 한국불교의 정화사가 정리되면서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 정화는 54년 이승만대통령의 유시에 따라 비구·대처간의 분규로 나타난 현대불교사의 분수령이다.

태고종은 지난 1일 총무원에서 백서발간추진위원회를 오는 10일 발족키로 하고 이원공스님(총무원부위원장)을 위원장, 법현스님(총무부장)을 간사장으로 하여 각부장과 기관장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분규로 인한 물적 인적 번잡피해와 각 신문 문서 진정서 결의사항 자료문 의견을 수집하고 분규관련스님의 증언과 방대한 분규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분석, 집필에 들어가 오는 10월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백서는 조·태 분규발발 원인에 대해 불교계 내부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분규관련 원로스님들의 증언과 재가불자정부기관의 관계자 의견을 채록했다. 또 종단참고에 보관해온 분류번호 1번 전등사·봉선사 재산대장에서부터 4백55번 불교조계종 종헌까지의 통합종단당시 조계종 문서와 미국 CIA에 보관중인 한국불교 자료를 수록한다는 것. 특히 분규와 관련 미국 CIA 자료에는 조선시대 통불교에서 일제시대 불교, 분규과정의 불교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조·태 분규의 관계가 규명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선우도량도 정화운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주도하였거나 참가한 60여명의 스님·재가자들의 증언과 총독부의 관보였던 매일신보와 친일계 신문들의 기사자료를 토대로 증언채록집인 <불교정화운동사자료집>을 내년 7월에,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2>를 오는 11월경 각각 내용을 계획한다.

원로스님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경험과 상황을 진솔한 이야기체로 담아내게 될 <불교정화운동사자료집>은 현재 조계종 태고종의 대담인사로 석주 범룡 원산 능가 관용 서용 백암 서봉 덕암 보성 문제스님과 정태 동방불교대학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실무적인 증언채록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우도량은 일제시대 총독부의 불교재산 처분에 관한 기록과 재판기록을 통해

토지의 소유변천과정을 이해토록 하는 자료집을 올해말부터 정리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수집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불교사 연구의 필수이며 불교정화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선불교계의 항일운동>자료집 발간과 함께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일우 기자>



"초임주지 첫 교육" 실시했다. 종단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교육에는 84명의 초임주지들이 참석, 재정관리, 포교와 신도관리 등 중무행정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봉선사=이준엽 기자>

다보수련원 20일 개원

진흥원 피산에...故 장경호거사 흉상제막도

교계의 첫 종합수련원이 되는 다보수련원이 준공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오는 20일 오전9시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현지에서 준공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준공법회에 는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대한불교진흥원 서툼각이사장 등 6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며, 준공법회에 이어 불교진흥원 설립자 고 장경호거사의 흉상제막식도 봉행한다.

다보수련원은 지난 93년 공사를 시작해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웅전과 지하, 지상2층 연건적 267평 규모의 수련관을 완성했다. 또 수련원과 국립공원 화양동계곡으로 이어지는

산책코스 및 등산로를 개발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보수련원은 이후 불교계 실행단체의 수련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과 가족단위의 수련에도 수련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다보수련원은 개원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21일까지 실행단체 지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권기중(동국대교수) 김경진(작가)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주제의 특별강연도 있다.

청소년지도자 모임

선재연구회 13일 창립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불교문화활동 보급을 위한 청소년 전문지도자모임이 결성된다.

선재마을 부설 선재연구모임(회장 범스님)은 오는 13일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직 불교청소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발족되는 선재연구모임은 8월 12일부터 31일에 걸쳐 경주일대에서 열리는 전래 놀이캠프를 시작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선재연구모임은 월간 '선재' 발간, PC통신 상담실 운영, 청소년관련서적 발간, 어린이 청소년 불교학교 행사지원, 청소년지도자양성 등을 주요활동으로 할 예정이다.

납골당·장례식장 활성화 '가시화'

복지부 '장묘제 개선안' 발표...종교시설은 신고제로

6월28일 복지부의 '장묘제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계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납골당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시설유치에 활기를 띠 전망이다. 복지부의 '장묘제 개선안'에 따르면 빠른 97년 상반기부터 현행 공·사설 집단묘지는 합기당 9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6평 이내로 묘지허용면적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집단묘지에 대해 '시한부매장제'를 도입, 묘지 매장기간을 30~6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15년씩 연장키로 했으며

이후에는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이에따른 보강책으로 복지부는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설 법인묘지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시 국·공유지 무상사용 및 시설비를 보조한다는 계획이어서 교계의 장묘시설 유치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이밖에 '종합 장례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전화 한통화로 빈소설치에서 운구, 묘지 앞선 및 봉분조성까지 모든 장례절차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시안은 현재 교계에서 납골당 및 장묘시설을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고운사, 영각사, 백양사 등의 장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변경등 논의 승가대 김포이전추진위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자하) 1차 회의가 지난 4일 중앙승가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전추진위원들의 상건례를

가정신행·기원의례 생활화하자

집안의 길흉사에서 인사법에 이르기까지 불자가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이 지난 2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주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 주관으로 개최됐다.

부산불교신도회 '불자가례' 세미나

포교활성화를 위한 기획시리즈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 '불자가례의 현실과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기인씨는 '불교의 정법과 가례가 시대적 상황과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기록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일반불자들이

합장·공양기도 '포교사부터 실천' 합장 인사하기, 공양 기도하기 등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포교사가 먼저 실천행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대원성행씨(보현봉사 회장)는 '가정신행, 기원의례의 생활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대개의 관혼상제가 불교식으로 행해지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에 의한 강력한 배불정책으로 전통적인 불교가례가 산중사찰로 밀려나게 됐다'며 '불자들의 소극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심이 불교 생활화의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불교교양대 학제 통일안 제시

조계종, 교과과정도...포교사 자격 강화

조계종 포교원산하에 있는 불교(교양)대학의 학제와 커리큘럼이 통일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4일~5일 서울 북악파크 호텔에서 종단등록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를 갖고 불교대학 학사일정 통일화방안을 제시했다.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제통일방안으로는 포교사 응시자격을 9년부터 학제 6개월 이상인 대학으로 한정하고 2000년까지 2년제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개편,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포교사를 배출, 불교포교의 질적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통일화방안에 따르면 기초과목을 신도입문서, 불교학개론, 종헌 종법특강, 습의 및 사찰 수련회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신행, 불교사, 경전, 포교실무분야 등의

이밖에도 강의시간 및 일정, 수강신청 및 수료학점, 교수진 선정, 평가기준 등의 세부적인 불교대학 학사일정 통일화방안이 논의됐다.

설계도를 기존 9백60명 기준에서 4백80명으로 변경 설계하기로 했다.

또 현대가람 건축양식으로 짓되 교직자 스님들의 기숙사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전추진위는 종단차원의 자금지원 촉구 외에도 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 전 종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음 깨닫고난 후의 이익

깨닫고 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데 깨달음이 더 높은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물을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방입니다. 그건 으르렁 있는 그대라는 여실히 보고 일체 만물에 둥아니게 응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본래의 밝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여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탈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원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정당한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ROM-티이름을,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후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삼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